

전남도, 관광·문화·체육 3579억 투입

방문의 해·기금 등 308억 증액 관련업계 피해극복 사업 추진

전남도가 2022년 관광·문화·체육 분야 예산을 전년보다 308억원 증액한 3579억원을 들여 연관 업계 피해극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는 총 1060억 원으로, 코로나 피해극복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한 관광업계 시설 및 운영 자금 지원과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운영 예산을 확대했다.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 전남 방문의 해 운영 23억원, TV홍소핑 관광상품 판매사업 등 국내외 홍보마케팅 23억원, 전남관광재단 운영 지원 35억원, 지역축제 육성 12억원을 반영했다.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목포 관광거점도시 육성 73억원, 오시야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설치 33억원, 탄소없는 청정 관광지 재생사업 5

억원, 영산호관광지 조성 9억원 등을 투입한다. 문화예술 분야는 740억원으로, 지역 문화예술인 대상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기반 조성 예산이 대폭 포함됐다. 문화시설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53억원, 문예회관 건립 17억원, 공공도서관·미술관·박물관 건립 29억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38억원을, 문화예술 지원육성을 위해 전남문화재단 운영지원 41억원, 지역문화 진흥지원 15억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23억원 등을 반영했다.

문화자원 분야는 810억원으로, 문화재의 지정 보존 및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과 미래 가치 창출 기반 조성을 공고히할 방침이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와 재난방지 시설 구축 411억원, 전통문화유산 관리 73억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사업 27억원, 마한역사문화권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 및 발굴조사 등 17억원을, 박물관 건립 및 역사인문 진흥을

위해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22억원, 한국학 호남진흥원 운영 12억원, 역사 인문자원 현장 및 보급 11억원 등을 투입한다.

스포츠산업 분야는 764억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남체육 경쟁력 강화, 수요자 중심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도민에게 질 높은 체육서비스를 펼친다.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남체육 및 장애인 체육 육성 등 180억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 및 전지훈련 유치 등 28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체육 기반시설 조성 430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 활성화 62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40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연관업계 피해극복을 위해 여행상품 운영 인센티브 6억원, 숙박 할인지원 7억원, 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지원 4억원, 지역예술인 창작육성 준비금 지원 6억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24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중심사천 2곳,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 추진

정부 시범사업 등산보·성춘보 선정

광주시는 “환경부의 ‘2021년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시범사업’에 중심사천 내 등산보, 성춘보 등 2곳이 선정돼 조만간 착공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천관리기관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전액 국비를 투입해 실시하며 설계와 시공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시행한다.

현재 광주천과 중심사천에는 농업용수를 취수 목적으로 상당수의 보가 설치됐고, 지금은 그 기능과 용도를 다해 노후 농업용 보 등 15곳이 방치돼 있다.

광주시는 농업용 보, 낙차공 등 횡단구조물이 수질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기능을 상실한 횡단구조물 철거와 개선을 통해 광주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2022년 사업에도 응모해 환경부 심사를 받고 있으며, 오는 2024년까지 15곳의 노후 횡단구조물을 모두 철거·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하천 구조물은 하천 수생태계 이동통로를 단절하고, 수질을 악화하는 등 수생태계 건강성을 훼손하는 주원인”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역 내 하천구조물을 모두 철거하고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수 경도 진입도로 공사비 추경 반영돼야”

전남도, 여수시의회 추경심사 앞두고 호소

전남도가 여수 경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여수시 분담금 72억원의 확보를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안이 2월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7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담회를 열어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시는 2017년 7월 경도 해양관광단지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며 “시가 부담하기로 한 예산 미확보로 투자자의 투자철회 시 지역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앞으로 전남에 오길 바라는 기업의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도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서에 ‘연륙교 등 기반시설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한 만큼, 미이행 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협약에 따라 경도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여수시 분담금 72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이미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요청했다”며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제때 이뤄지도록 대응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도 진입도로는 여수시가 1986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 도시계획도로(신월동-대경도-돌산도)다. 하지만 지난 35년간 예산확보가 어려워 구간 추진하지 못한 숙원사업이자, 꼭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총사업비 1195억원을 투입해 1.35km의 연륙교를 2024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개설해야 하나,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총사업비 1195억원 중 국비가 40%인 478억원을 보조한다. 나머지 사업비도 전남도와 여수시, 미래셋이 각각 20%인 239억원을 부담, 시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당시 여수시 등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경도개발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정도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생활속박시설에 대한 투기 우려를 주장하며 경도 진입도로 예산 반영을 반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투표 독려 홍보 업무 협약식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달 앞둔 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투표참여 독려 협업홍보 업무 협약식에서 김영도 광주시선관위 사무처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서규일 벌크커피 대표 등 선관위 직원과 벌크커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광양항 최첨단 동북아 물류허브’ 온힘

대선 공약·차기 정부 조기 사업 추진 위해 지역사회와 공동 대응

전남도가 부산항과 함께 ‘투포트’ 중 하나인 광양항을 ‘최첨단 동북아 물류허브’로 육성하는 ‘광양항 발전 및 활성화’ 대책을 제20대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에 반영하도록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를 부산항과 함께 국내 거점항만으로 육성했으나, 투포트 정책이 지속하지 못하고 계속된 부산항 중심 항만정책으로 인해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하는 등 침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담회를 열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 및 지역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항 편중의 정부 항만정책에 위기의식을 느낀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출신 서동용 국회의원의 강력한 요청과 지역 여론에 전남도가 정치권

및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광양항은 광양제철소, 여수산단 등 철강과 석유화학의 원료 및 제품을 처리하면서 용·복합 항만 역할을 했다. 그러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정부의 부산항 집중지원에 따라 2011년 부산항 처리 물동량(1614만TEU)의 12.8%(206만TEU)를 처리하던 것이, 10년 후인 2021년 부산항(2269만TEU)의 9.4%(213만TEU)로 격차가 벌어졌다.

광양항이 침체 위기에서 벗어나 ‘최첨단 동북아 물류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3-2단계 ‘컨’ 부두 완전 자동화 구축을 비롯한 항로 준설, 항만배후단지 확충, 신규부두 건설 등 국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광양항 인프라 확충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야 한다.

항만배후단지 완공 후 항만 물동량 증대에 대비해 3-3단계 ‘컨’ 부두를 스마트항만으로 추가 조성

하고, 광양항과 울촌 산단을 연결하는 도로 구축, 광역준설도 투기장 조기 조성 등도 필요하다. 또 LNG 방커링을 비롯한 수소 스테이션, 수소공급 배관망 등의 조기 구축을 통해 광양항을 친환경 에너지 허브 수소항만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여기에 광양제철소, 여수산단 등에 필요한 원재료와 제품의 원활한 수출입을 위해 여천(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을 비롯해 체선율 개선을 위한 부두 확충 및 리뉴얼(Renewal) 등을 통해 국내 최대 용·복합 항만으로 조성해야 한다.

앞으로 전남도와 서동용 국회의원은 광양항 발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의 지역공약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차기 정부 출범 후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최선을 다해 광양항을 명실상부한 ‘최첨단 동북아 물류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중소 수출기업 30억원 융자 지원

업체당 3억 2년 거치 일시상환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해외판로 개척 등을 돕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융자 지원 대상은 광주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1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업체다. 2020년도, 2021년도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한된다.

융자 대상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 관련 사업이다.

자금은 업체당 3억원을 지원하며, 2년 거치 일시상환(변동금리) 조건이다. 융자지원계획은 9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하고, 23일부터 3월 18일까지(제)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접수를 받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악화된 통상 환경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에 이번 융자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도록 지원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 촉진을 위해 1998년부터 2021년까지 336개 업체에 수출진흥자금 602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계절 심과 즐거움이 있는 정읍!

휴식·치유·관광도시

정읍천변 벚꽃

정읍 라벤더 허브농원

정읍 구절초 공원

정읍 내장산 설경

정읍시 JEONGEUP-SI